

Safety News

롯데칠성음료(주) 광주공장 무재해 10배 달성



롯데칠성음료(주) 광주공장(대표이사 이종원)은 무재해 목표 10배를 달성하고 안전협회와 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달성탑을 받았다. 병, 캔음료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주) 광주공장은 직원 57명의 중소기업이지만 근로자와 경영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여, 93년 10월 15일부터 무재해 사업장을 이어온지 11년이 되어 무재해 10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주) 광주공장은 사고 Zero 사업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더욱 활발한 무재해 운동 전개와 안전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안전기술 교류를 통하여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롯데건설(주) 안전관리자 맞춤식 연수교육 실시

안전협회(이홍지 회장)는 롯데건설(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2차에 걸친 맞춤식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리조트 연수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롯데건설(주)의 2005년도 안전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한 우수사례 전파, 문제점 해결 등 자체 업무능력 및 해결능력 향상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각 차수별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실제 롯데건설(주)에서 일어났었던 사례를 들어 교육함으로써 더욱 실감나고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안전한 롯데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주시회, 안전기원제 가져



진주시회(정중수 국장)는 지난 1월 18일 2005년의 무재해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가졌다.

이동우 진주시지방노동사무소장과 강성훈 진주시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장을 비롯해 민영하 한국노총 경남서부지부장,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진주시역 사업장의 무재해는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의식을 확립시켜 일터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까지의 안전 문화 정착을 꾀하였다.

참가한 관계자들은 우리의 안전기원 소망이 하늘과 땅에 닿아 진주시역은 물론 우리나라 곳곳에 안전의식이 확립되기를 기원하며, 그에 진주시역 안전관계자들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산재율 0.85%로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0.85%로 전년대비 5.6%가 감소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산업재해가 4년만에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자수가 8만8874명으로 전년대비 6050명이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2825명으로 98명 감소했다.

또한 산업재해율도 0.85%로 지난 2003년 0.90%보다 5.6% 감소했으며 사망만인율은 2.70으로 2.2% 감소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체 재해 중 재래형 재해가 76.5%를 차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8.0%의 재해가 발생하여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산업재해 현황〉

구 분	2004	2003	증 감	증감율(%)
○ 사업장수(개소)	1,039,208	1,006,549	32,659	3.24
○ 근로자수(명)	10,473,090	10,599,345	- 126,255	- 1.19
○ 재해자수(명)	88,874	94,924	- 6,050	- 6.37
- 사망자수	2,825	2,923	- 98	- 3.35
- 요양자수	86,049	92,001	- 5,952	- 6.47
- 업무상사고자수	79,691	85,794	- 6,103	- 7.11
- 업무상질병자수	9,183	9,130	53	0.58
○ 재 해 율(%)	0.85	0.90	- 0.05	- 5.56
○ 사망만인율	2.70	2.76	- 0.06	- 2.17

Safety News

건교부, 장관직속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설치·운영

안전사고 노출,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의 민원을 전담하는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가 지난 1월 20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거나 임금이 밀려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건교부장관 직속으로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근로자들이 이 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을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한다. 민간 공사는 장관명의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설치 이후 보름만에 총 194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교부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써 안전부실 문제 및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 고 전 화 *

02)507-1630, 1660
「월 ~ 금」 09 : 00 ~ 18 : 00

자연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수립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 발생시 주민들을 30분 이내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권옥 청장)은 15일 기상청과의 공조로 지진해일, 태풍,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지역 주민들을 30분 이내에 완벽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재난대비 30분 대피시스템(E-30)’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상청에서 시·군·구에 직접 지진해일 특보발령 사항을 전달하고 지자체는 민방위 사이렌, 가두방송 등의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상황을 전파하며 대피소는 고지대 등 안전이 확보되고 진입이 용이한 지역에 설정하여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해 일시에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피소 위치와 주민행동요령이 수록된 대피지도는 지자체별로 작성해 배포하고, 평소 민방위 위훈련에 E-30 대피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